

# BTS·트와이스 '투톱'...중원사령관엔 박보검

김수현·블핑·몬예, 중원서 볼 배급  
신구조화 슈주·엑소 등 수비벽 탄탄  
견고한 등방신기, 10년 넘게 수문장

▼스포츠통아 창간 11주년을 맞아 2019년 한류의 열기를 이끌 스타들을 꼽았다. 이들을 축구 국가대표 엔트리에 빗대 '한류스타 가상 베스트 11'로 꾸민다.



"대한한류협회가 12월 열리는 2019 스타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확정했다. 협회는 20일 "기술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최상의 멤버로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스타월드컵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춤, 노래, 연기 등 재능을 펼쳐 겨루는 무대. 각종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자존심을 건 경연인 만큼 선발로 나설 한국 대표팀의 '베스트11'에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을 이끌 사령탑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태극전사들은 그동안 다채로운 콘서트를 열어 손발을 맞춰온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담금질을 시작한다."



●FW(최전방 공격수)···방찬소년단·트와이스  
역대 최강 전력의 투톱. 문전 돌파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빠른 발의 민첩성으로 수비수 2명 정도 제치는 건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뛰어난 골 결정력을 자랑한다.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유효슈팅뿐 아니라 골네트를 가르는 호쾌한 슛의 정확도는 그야말로 '원 샷 원 킬'이다.  
신곡마다 미국 빌보드·일본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파워를 지녔다. 방찬소년단은 지난해 빌보드 200 차트 연속 1위 등 멀티골을 기록했다. 이들은 대회에 앞서 미국 LA,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5개 도시 '스타디움 투어'에 나서며 시범경기를 펼친다. 트와이스는 특히 일본전에 강해 걸그룹 최초 현지 돔 투어로 골게터의 역할을 발휘해 왔다.

중원이 풀리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의 공격 중간 차단은 물론 볼 배급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다.  
김수현은 로맨스, 코믹,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로 쌓은 실력을 유동적으로 발휘한다. 특히 선수급의 볼링 실력으로 뛰어난 스페어 처리 능력을 지닌 그는 넓은 시야의 패스 정확률이 높다. 그동안 상무 소속으로 뛰다 7월22일 제대해 이번 대회가 A매치 데뷔전이다.  
'모범' 이미지의 박보검은 평소 차분한 성격과 이타적 플레이로 수비에도 적극가담하며 경기 속도를 조율한다. '젊은 피' 블랙핑크와 몬스타엑스는 각각 YG엔터테인먼트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유소년팀 출신으로, 1년 사이 놀라운 성장세로 첫 출전 성인무대에 기대를 모은다.

기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 이후 3년 만에 대표팀에 승선했다. tvN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 실력을 입증할 기세인 그는 드라마 속 거친 카리스마로 상대 공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한류 초기 중국에서 붐을 일으킨 슈퍼주니어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투어로 전통의 강호 남미시장까지 장악했다.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통해 대표팀의 뒤를 든든하게 받든다.  
엑소는 2012년 데뷔하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유닛 활동을 벌이는 등 슈퍼주니어와 절묘한 호흡을 맞춰왔다. 노래, 춤, 연기 등 다재다능함으로 수비벽을 견고히 쌓는다. 레드벨벳은 2015년 신인상을 휩쓴 데 이어 올해는 북미와 일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최전방까지 내다보는 넓은 시야를 확보했다.

의 카리스마는 물론 후배들과 소통하는 '큰형'의 리더십을 자랑한다. 서른 살을 넘긴 나이에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후배들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해 오랫동안 수문장을 맡아왔다.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탄탄하고 견고한 실력이 원천이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유소년 시절을 착실하게 보낸 뒤 2004년 프로무대에 데뷔하자마자 일찌감치 한류 팬의 눈도장을 받았다.  
수만 관중의 함성에도 밀리지 않는 힘을 과시해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 등 상대 공격수 정면승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카리스마로 극도의 긴장감을 줄일 줄 아는 내용을 지녔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견재함을 드러내왔다. 이들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없어 당분간 한국 골문을 지켜갈 전망이다.

●MF(미드필더)···김수현·박보검·블랙핑크·몬스타엑스  
허리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구성.

●DF(수비수)···송중기·슈퍼주니어·엑소·레드벨벳  
새롭게 정비한 신규 조화의 라인. 송중

●GK(골키퍼)···동방신기  
10년 넘게 대표팀의 골문을 지키며 주장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형조·김대건 기자

## '베테랑' 전지현부터 '신흥강자' 갯세븐까지... "교체멤버? 우리만 믿어!"

베스트 11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언제든 필드를 누빌 수 있는 교체 멤버들이 있어 든든하다. 가수 김재중, 황치열, 연기자 전지현, 박신혜, 그룹 갯세븐(GOT7)이 그 주인공이다.

### ●'베테랑' 김재중·전지현



김재중



전지현

'관록'이란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재중은 동방신기 시절인 2004년부터, 전지현은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개봉한 2001년부터 그라운드를 내달린 베테랑 최전방 공격수다. 주역 국가는 각각 일본과 중국. 김재중은 2011년 일본 트위터 유명

인 랭킹에서 '국민그룹' AKB4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7일 홍콩에서 열린 제 13회 아시아팝어워드에서 차세대 스타상을 받은 그는 최근 아시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베스트11' 합류를 눈앞에 뒀다. 전지현은 중국 방영 첫 날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3)의 인기로 힘입어 '전지현 패션'을 아시아 전역에 유행시켰다. 한류스타의 '대선배' 격인 두 사람은 해외에서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 ●'허리' 황치열·박신혜

해외 활동으로 한국에서 '역주행' 인기를 누린 황치열과 박신혜는 든든하게 한류를 받치는 '허리'다. 황치열은 2016년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서 유일한 외국인 가수로서 세 차례 우승하며 탄탄한 팬덤을 쌓



황치열



박신혜

었다. 박신혜는 2009년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일본과 중국 어권에서 히트하면서 그라운드를 누렸다. 이후 그는 '상속자들'(2013), '피노키오'(2014),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 등으로 베스트11의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두 사람은 LET TV 어워즈를 비롯해 중국에서 상을 휩쓴 경력을 지녔다.

### ●'신흥강자' 갯세븐

2014년 데뷔한 갯세븐은 패기로 푹푹 뭉친 '신흥강자'다. 대한민국(JB·진영·영재·유겸), 미국(마크), 홍콩(잭슨), 태국(범



갯세븐

범) 등 다국적 출신으로 구성,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다. 지난해 미국 LA, 휴스턴, 뉴욕 등에서 월드투어를 열고, FOX5 채널의 토크쇼 '굿데이 뉴욕'에 출연하며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연기(진영)와 예능(잭슨, 뱀뱀) 등 다방면을 아우르는 넓은 활동 범위도 장점으로 꼽힌다. 빌보드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공연한 케이팝 최초 그룹"이라고 칭하며, 이들의 무서운 성장세에 주목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한류 태극전사 사령탑 후보는?



이수만 방시혁

### '용병술 달인' 이수만 '빌보드 명장' 방시혁

태극전사를 이끌 사령탑 후보는 2명으로 좁혀졌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겸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며 세계가 놀랄 만큼 폭발할 만한 성과로 한류 팬들의 무한 신뢰를 얻어 왔다.

1970~8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그라운드를 누빈 이수만 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한류 인기의 초석을 다지며 선수들을 키워낸 대표적 지략가이다. H.O.T., S.E.S.,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등 그의 손을 거쳐 간 선수들을 열거하기에도 숨 가쁘다. 탁월한 기획력과 선구안과 적재적소에 스타급 선수를 기용하는 용병술로 2017년 미국 버라이어티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500인'에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철저한 기획과 전략의 힘으로 대표팀의 우승을 노리고 있다.

방시혁 대표는 최근 3년 만에 급부상한 소장파, 작곡가로 시작해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그는 친정팀인 JYP엔터테인먼트를 나와 2005년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다. 8년의 절치부심 끝에 방찬소년단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해 세계 음악무대 정상에 서기까지 긴 시간 혹독한 단련으로 이들을 키워내며 끈기와 집념을 포기하지 않은 집요한 지도자이다. 탄탄한 전술을 바탕으로 누구도 밟지 못했던 '꿈의 무대'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방찬소년단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빌보드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 '뉴 파워 제너레이션 25 톱 이노베이터'로 선정했다.